

오늘은 세상이 얼어붙은 지 99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마비, 전인구 중 80%의 사망,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들의 멸종... 그 모든 것들을 떠안은 채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마을을 꾸려 지내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가요? 3년간의 시간 동안 추위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추위를 제외하곤 큰 사고 없이 평화롭던 마을에 바람과 함께 스산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건이요. 이전에도 마을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몇 있었으나 이 정도로 꾸준하게,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누군가 사라지는 일은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원 밖으로 나갈 탐사대를 모집합니다. 탐사자들은 자의든, 강제든 이 탐사대에 속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실종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눈보라가 치는 밖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나리오 정보」

추천 인원 : 2인~4인

배경: 현대

플레이 타임: 테스트 플레이(ORPG) 기준 5~6시간

로스트/광기 가능성: O

전투 가능성: X

탐사자 난이도 : ★★☆☆☆

키퍼 난이도 : ★★☆☆☆

「유의사항」

- 카오시움 출판, 도서출판 초여명의 번역본인 크툴루의 부름 제7판을 사용하는 비공식 팬메이드 시나리오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음을 알립니다.
- 살인, 유혈, 신체 훼손 등에 대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키퍼는 사전에 이를 반드시 플레이어들에게 고지해주세요.
- 룰북 없는 키퍼링,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시나리오 스포일러, 악의적인 시나리오 비하 발언을 금합니다.
- 세션 카드 커미션을 넣을 경우, 이미지 내에 @Kamurocho_ 혹은 김대리를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든 사항에서 개변은 자유롭습니다. 문의하실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개변하시되, 개변한 시나리오의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 모든 문의는 시나리오 배포 계정 (@Kamurocho_)로 부탁드립니다.

!! 아래로 시나리오의 진상이 이어집니다 !!

진상

갑작스러운 흑한, 이유도 모른 채 얼어붙기 시작한 세상,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생명체들... 모든 재앙은 이타과(룰북 p.330~331)가 지구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이타과를 지구에 강림시킨 것은 이타과를 숭배하고 있는 소수의 로이고르들(룰북 p.288)입니다. 비실체의 몸을 가진 그들은 인간 몇몇을 부하로 삼아 강림 주문을 성공시키게 한 후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타과를 지구로 불러들입니다. 이타과가 지구로 내려오면서 점차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추위에 얼어붙기 시작하고, 인간들이 지어놓은 시설따위가 마비되면서 결국엔 세상의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흑한을 대비하지 못한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세워봤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인구의 80%가 이 재난으로 사망하고, 세계는 녹지않는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얼어붙은 세계 속에서 로이고르들은 남은 생존자들을 모아두고 그들의 생명력과 마력을 착취하다가 이타과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합니다. 이후 자신들의 부하를 생존자 틈에 섞어 한 곳에 모아 정착시키게 하고, 그들만의 거주지를 만들게 합니다. 작은 마을과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그곳은 로이고르들의 부하 몇 명이 대표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며, 로이고르의 영향이 미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밤에는 잠든 주민들의 마력을 빨아먹고, 주민들 모르게 주기적으로 몇 명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 이타과의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라짐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밖을 돌아다니다 길을 잃어서 돌아오지 못했다, 안전한 이곳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사망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설명을 납득하고 넘어갔으나 의문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흑한도, 어느날 등장해 생존자들을 모아 자연스럽게 마을을 건설한 대표들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들만의 단체를 만들어 지금의 현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조사하고 다니는 움직임을 감지하자 로이고르의 수하들은 단체의 몇 명을 일부러 마을 밖으로 내보내 이타과에게 희생당하게 하고, 때로는 밖의 괴물에게 당한 것처럼 신체를 훼손시킨 채 마을에 들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내부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계속 조사를 할 것인지, 괴물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밖으로 달아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던 단체는 계속해서 마을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결국 마을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밖에서 안전한 거처를 잡고 천천히 주민들을 빼내올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체는 대표들의 눈을 피해 버려진 도시를 향해 달아납니다.

하지만 외부에 자리를 잡고 몇몇 주민들을 마을로부터 빼내오며 지내는 것도 잠시, 마을의 밖에는 이타과가 돌아다니고 있기에 또다른 희생이 생기고 맙니다. 자신들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밖에서 무언가를 만나 사망하는 일이 생기고 만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온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전과도 같은 땅을 찾아내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그들은 이주 계획을 세우고 아직 추위가 전부 미치지 않은 곳, 여름이 오면 이끼가 우거지는 땅을 찾아내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도시에 남은 문서와 서류, 그리고 어디선가 신화서까지 찾아와 읽게 됩니다. 그 결과 단체는 아직 얼어붙지 않은 10%의 땅으로 향하는 관문상자(룰북 p.254)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새로운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상자를 만드는 것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마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관문을 만드는 것에 마력과 이성을 모두 흡수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관문을 넘어가기도 전에 힘이 다해 사망하고 맙니다. 여기서 멈추는 자신들 대신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마을 측은 도망간 이들을 잡으려고도 해봤지만, 얼마 안 가 이타과에게 잡힐 것이라 생각했기에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밖으로 도망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정도의 설명만 하고 언제나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구에 내려온 이후로 로이고르들이 보내주던 제물만 삼키며 숨죽여있던 이타과가 직접 움직이며 사람들을 납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을 근처를 다니던 사람들조차 사라지고 그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섞여있는 로이고르의 부하들은 이 현상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지도, 해결을 할 의향도 비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 내부에서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직접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자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설원으로 나갈 사람들이 이타과에게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밖을 조사할 탐사대를 꾸립니다. 탐사자들은 자의로 참가했든, 반강제로 속해졌든 이 탐사대에 속해있습니다.

탐사자들이 설원에서 찾게 될 것은 관문상자입니다. 탐사자들은 마을에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넘어가 미래를 도모할 수도 있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찾은 것에 대해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 탐사자들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 수호자께서는 사전에 탐사자들이 지내는 마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해주세요. 시나리오 내에서 정해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을의 총인원은 **38명**. 대표 세 명이 마을을 관리하고 있다.
- 마을의 주민들은 각자 배정된 개인 텐트에서 생활한다. 기본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숫자가 부여되며, 중간에 숫자를 바꾸거나 텐트를 뺄 수는 없다. 사망자 등으로 인해 빈 텐트는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이주자를 받는다.
- 대표의 허락없이 마을 밖을 나서는 것은 금지된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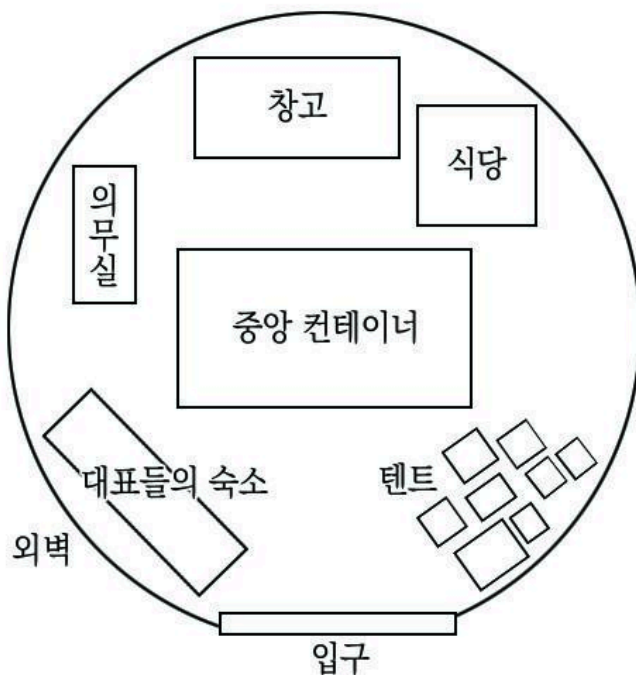
오늘은 세상이 얼어붙은 지 **99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마비, 전인구 중 **80%**의 사망,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들의 멸종... 그 모든 것들을 떠안은 채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마을을 꾸려 지내고 있습니다.

추위를 제외하곤 큰 사고 없이 평화롭던 마을에 바람과 함께 스산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건이요. 이전에도 마을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몇 있었으나 이 정도로 꾸준하게,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누군가 사라지는 일은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원 밖으로 나갈 탐사대를 모집합니다. 탐사자들은 자의든, 강제든 이 탐사대에 속한 상태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낮입니다. 탐사대가 마을 밖을 나서는 것은 내일이라고 했죠. 마을의 대표들은 안내 사항이 있으니 꼭 쉬다가 저녁에 중앙 컨테이너로 오라고 한 후 자리를 뜬 상태입니다. 마을을 나가 얼마나 돌아다닐지 모르는 일입니다. 새삼스럽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 이후 탐사자들은 마을을 돌아다닐 수도, 쉬다가 저녁에 중앙 컨테이너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설원의 마을」



뭉쳐서 단단하게 만든 눈덩이, 무너진 건물에서 나온 잔해 등으로 이루어진 외벽이 마을을 원형으로 감싸고 있고, 중앙에 가장 큰 규모의 컨테이너가 놓여있습니다. 중앙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주변에 공동구역-식당, 창고, 의무실 등-으로 쓰이는 컨테이너와 사람들의 숙소로 쓰이는 텐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들이 따로 사용하고 있는 숙소도 보이네요.

「공동구역」

- 식당

말라죽은 나무로 만든 테이블들이 놓인 식당입니다. 테이블에 띄엄띄엄 앉은 사람들이 무언가 먹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컨테이너의 한편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따위의 조리 도구들이 쌓여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간단한 식재료들이 담긴 상자들이 보이네요.

▷ 테이블을 살필 경우 |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고 원목을 길게 잘라 다리를 달아둔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윗면만 적당히 코팅을 해둔 것 같네요. 사람들 몇몇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테이블의 위를 자세히 살핀다면 누군가 뽀족한 것으로 흠집을 낸 자국이 있습니다. 자국을 살펴보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마을 밖에서 보자. A(*탐사자들의 국적에 맞게 이름을 정해주세요. 단체의 일원 중 한 명입니다.)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

▷ 사람들을 살필 경우 | 파리한 인상의 사람들이 두툼한 옷을 꺼입은 채 장갑까지 끼고 말린 육포 따위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말을 걸면 잠깐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안색이 좋지 않으며 무척 지친 듯 무기력해 보입니다.

- 안색이 좋지 않다. 무슨 일이 있나? |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고 두통이 심하다. 쉬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 무엇을 먹고 있나? | 쥐 고기를 말려서 만든 육포다. 얼마 전에 끽끔 언 놈을 운 좋게 하나 찾아냈다.

- 당신도 탐사대에 참가했나? | 마을 밖을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들어 참가하지 않았다. 나보다 용기있는 사람들이 나가주지 않겠나.

- 실종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 | 이전에 마을의 물자를 들고 도망간 놈들이 있었다. 놈들은 괴물이니 뭐니 하는데, 내 생각엔 그 놈들이 사람들을 하나 둘 빼가는 것이 틀림없다.

▷ 조리도구들을 살필 경우 | 마땅한 조리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 탓인지 고장이 잦아 여기저기서 쓰던 가스버너들을 가져왔었죠. 고장난 버너들과 다 쓴 부탄가스통, 이빨이 나간 그릇 따위가 철제 선반 위로 쌓여있습니다.

▷ 상자들을 살필 경우 | 썩은 감자나 당근, 봉지가 뽕뽕한 과자류, 통조림 등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자의 대부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남은 게 식량의 전부인가요? 상자의 주변을 살피면 재고 파악을 위해 붙여둔 것인지 메모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자-14알, 당근-8개, 통조림(수프)- 32개, 육포 2개...] 인원 에 비해 그리 많은 양은 아니네요.

- 의무실

다친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추위에 얼어 잘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상처를 입은 사람, 손발이 얼다 못해 안쪽으로 굽은 사람... 여기만큼은 환자들을 배려한 건지 난로 몇 개가 더 놓여있어 약간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무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쓰는 책상, 그리고 환자들 이 누워있는 침대들이 보입니다.

▷ 책상을 살필 경우 | 지금은 자리를 비웠는지 주인이 보이지 않네요. 책상 위에 진료차트와 간단한 소독 도구, 그리고 붕대 따위가 놓여있습니다. 책상 아래엔 서랍도 달려있네요. 진료차트를 살펴볼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Chart No. 025

Date. 20XX.05.14

Name. _B_ (* 탐사자들의 국적에 맞게 수호자께서 임의로 정해주세요.)

늑골부터 대퇴골에 이르는 부위의 손실. 짓이겨진 흔적. 전신 경직 증상. 눈발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 수족에 3도 동상 증상.

>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음. 사망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배정된 텐트로 돌려보냄. (14호실)

* 밖의 괴물에게 당한 것처럼 위장시키고 마을 측이 다치게 한 단체의 일원 중 하나입니다. 이후 마을에 죽기 직전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단체에 의해 구조되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텐트가 모인 곳을 가도 14호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침대들을 살필 경우 | 얼굴과 상체 쪽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람과 수족을 천으로 감싸고 있는 사람이 엉성한 철제 침대 위에 누워있습니다. 대화는 힘들어 보입니다.

▷ 서랍을 열어볼 경우 | 역시 여기서 전문적인 의료 시설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상비약밖에는 들어있지 않은걸요. 진통제, 감기약, 포장지가 뜯겨져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약들... 이게 상비약의 전부인가요?

- 참고

다른 공간들에 비해 좀 규모가 큰 컨테이너입니다. 약간의 식량과 더불어 마을에 쓰이는, 혹은 쓰였던 물건들이 쌓여있을 참고입니다. 마을의 대표들이 관리하는 곳이어서 접근을 막아둔 것인지 자물쇠가 걸려 있네요. <열쇠공> 등의 판정 등으로 강제로 열 수도 있고, 중앙 컨테이너로 갔을 때 틈을 노려 열쇠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참고를 연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 대표들을 찾아 참고를 열어달라고 하면 거기서 탐사자들이 챙길 물건은 없다며 거절당하게 됩니다.

▷ 참고를 열 경우 |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맥없이 풀립니다. 컨테이너의 문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리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웅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예비 텐트들이 벽면에 접힌 채 세워져 있고 어디선가 가져온 전자기기들도 쌓여있습니다. 식당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상자들도 보이네요.

▷ 텐트들을 살필 경우 | 밖에서 사용하다가 들여놓은 것도, 아예 쓰지 않은 새것들도 보입니다. 만져본다면 사각거리는 텐트의 재질과 냉기가 함께 느껴집니다. <관찰력> 판정을 이용해 살피거나 14호실 텐트를 찾는다면, 피 얼룩이 묻은 텐트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4] 라고 수가 놓인 안내판이 달려있는 텐트입니다. 살펴보면 텐트의 아래와 입구 부분에 피가 묻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진료 차트에 적힌 사람이 쓰던 텐트입니다.

▷ 전자기기들을 살필 경우 |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컴퓨터 본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제품이 쌓여있습니다. 내부의 부품들을 꺼내 쓴 건지 여기저기 분해되어 있어 그대로 쓰긴 어려워 보입니다. 중간중간 빠져나온 부품의 모서리들이 제법 날카로워 보이네요. <관찰력> 판정 등으로 살피거나 관련 지식이 있는 탐사자가 자세히 살핀다면 화면을 송출하는데 쓰이는 부품들이 공통적으로 없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상자들을 살필 경우 | 성인의 품에 꼭 찰 정도의 크기인 상자가 열 몇 개 쌓여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자엔 식당에 있던 것과 같은 식량들이 들어있지만 가장 마지막의 상자, 혹은 <관찰력> 판정으로 찾아낸 상자는 다른 것들과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꼭 차 있어 겉면이 뽕뽕하게 부푼 상자는 윗면이 테이프 따위로 여러 차례 밀봉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뜯어본다면 생활감이 묻어나오는 옷, 노트, 신발, 그리고 기타 생필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 사라진 사람들/이주 단체의 물품입니다.

노트를 살펴본다면 누군가 적어놓은 메모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뒤 내용은 이리저리 구겨지고 찢어져 있어 읽을 수 없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얼어붙은 평원이라 불리지만 여름이 와 눈이 녹으면 이끼들로 뒤덮이는 땅.

이 세계에 마지막으로 남은 툰드라를 찾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여기서 남은 사람들은... ..

「텐트」

주민들이 각자 배정받아 지내는 곳입니다. 숫자들이 적힌 안내판이 달려있어 어디서 누가 살고 있는지 구별이 쉽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순서대로 숫자를 배부받았었죠. 특별한 가구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부에 작은 난로와 침구들 정도는 놓여있습니다. 밖을 나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거나 준비를 해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탐사자들의 번호는 수호자께서 적절히 설정해주세요. 현재 마을에 있는 총 인원은 38명입니다.

▷ 텐트 전체에 <관찰력> 판정을 성공할 경우 | 하나, 둘, 셋... 새삼스레 우리가 머물던 곳을 살피며 수를 세봅니다. 어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원래 이렇게 수가 적었었나? 예전에 봤던 것에 비해 텐트의 수가 줄어든 느낌입니다.

▷ 사라진 텐트의 호실을 파악할 경우 | 6호실, 11호실, 14호실, 21호실, 그리고 31호실이 사라져있습니다. 따로 텐트를 치운다는 공지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대표들이 치운 걸까요?

▷ 14호실을 찾아볼 경우 | 들어온 순서대로 배정받은 텐트들이니 분명 13호실 다음에 14호실이 있어야 할텐데... 14호실을 건너뛰고 13호실 다음에 바로 15호실이 있습니다. 텐트가 치워진 걸까요?

「외벽」

마을과 밖을 구별 지어주는 벽입니다. 성인 남성의 가슴팍까지 오는 높이입니다. 바깥을 구경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몇 명 보이네요.

▷ 밖을 바라볼 경우 |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눈이 날리는 것도 같네요. 아득한 너머로 도시의 건물들이 보입니다. 눈에 덮이고 무너졌어도 여전히 높았던 위상을 자랑하는 건물들, 우리가 살던 과거의 상징들입니다. 지금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 아이들과 얘기할 경우 | 아이들은 밖이 궁금한 눈치입니다. 거뭇한 눈가와 폭 패인 불을 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명랑합니다. 탐사자들이 말을 걸면 “밖에는 괴물이 산대요. 북풍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걸어 다닌다고 했어요...” “이라는 말을 조잘거립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물어볼 경우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이 말해줬다고 답합니다. 괴물에 대해 더 물어볼 경우, 그 괴물은 안전한 마을을 버린 사람들에게 내려진 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들의 숙소」

다른 곳보다 긴 형태의 컨테이너입니다. 여럿이 지내는 듯,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문과 곳곳의 창문들이 눈에 띕니다.

▷ 창문을 살필 경우 | 철창으로 막힌 것도 모자라서 내부가 겹뿔, 낡은 천 등으로 퐁퐁 가려진 창문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려둘 이유가 있을까요? 안은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던 듯, 의외로 쉽게 열립니다. 문을 열면 싸늘한 냉기가 훑 불어옵니다. 난방시설이 아예 되어있지 않은 건가요? 분명 신발을 신고 있을텐데, 냉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침대와 간단한 책꽂이, 소파 등이 보입니다. 소파에 사람 몇이 앉아있는 것도 보이네요.

- 침대

이불이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는 간이 침대입니다. 잠을 자긴 하는 걸까요? 이불 위에 먼지가 쌓인 것이 사용감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 책꽂이

버려진 도시에서 가져왔을 법한 책들이 꽂혀있습니다. 중간중간 두툼한 파일철들도 보이네요.

▷ 파일철들을 살필 경우 | 마을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들도 보이고, 세계 지도로 보이는 것들도 중간중간 끼워져 있습니다. 지도에 온통 뾰뾰한 X표가 쳐져있네요. (* 이타과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지역들을 표시해둔 지도입니다.)

- 소파

가죽이 낡다 못해 떨어져 내용물이 그 틈을 비집고 튀어나오고 있는 소파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표 셋이 모두 이 안에 모여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피곤에 찼은 듯한 붉은 눈들이 탐사자 일행을 응시합니다. 탐사자들이 대표와의 대화를 원한다면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대화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고압적이고 딱딱한 태도를 취합니다. 탐사자들이 무언가 부탁해도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주자들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을 피하거나 마을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답할 뿐입니다.

▷ 창고가 잠겨 있다. 열어줄 수 없겠나? | 마을 전체의 식량이나 구호물품이 들어있어 개인에게 열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다 주겠다.

▷ 물자가 부족하다. 탐사대에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나? | 현실적으로 어렵다. 밖을 나서는 탐사대를 풍족하게 지원해주면 마을에 남은 이들이 그만큼 굶주려야 한다.

「중앙컨테이너」

탐사자들이 저녁이 되기 전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곳을 충분히 둘러보거나 저녁까지 기다린다는 선언 이후 간다면 이미 마을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엔 모두 나갈 때까지 내부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기운이 풍겨옵니다. 중앙컨테이너는 마을회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죠. 난방시설을 잘해두었나 봅니다. 내부엔 간이 의자들과 테이블이 둥근 형태로 놓여있습니다.

▷ 테이블을 살필 경우 | 위에 서류철과 잡다한 소품들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두고 간 걸까요? 서류철의 날짜를 보면 오늘로부터 약 석 달 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류철을 살펴보면 자잘한 마을의 현황 아래에 메모들이 몇 줄 적혀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을 주변의 나무 감소. 허가 없는 벌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창고 내 전자부품들 분실. 화면을 송출하는 메인 회로를 뜯어간 상태.
- 도주자와 지속적인 교류 확인. 추가 방출 예정. 외부 단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할 것.
- 도주자 전원의 소지품 및 거주 텐트 처분. 노트에 적힌 내용은 즉시 폐기할 것.

▷ 테이블 위의 바구니를 살필 경우 | 쓰다 남은 연필이나 볼펜들, 누군가 가져다 뒀는지 모를 손난로 하나...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있습니다. 바구니를 뒤적여보면 군데군데가 녹슨 열쇠 하나가 떨어집니다. * 창고의 열쇠입니다.

▷ 내부를 전체적으로 살필 경우 | 한편에 커다란 배낭들이 (탐사자들의 수)만큼

놓여있습니다. 방한복, 간단한 식량, 작은 칼, 휴대용 램프 등이 들어 있는 것 같네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걸까요?

탐사자들이 안을 둘러보고 있으면 대표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표들은 하나같이 창백한 회색빛 얼굴에 죽은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총류 같은 눈동자들이 데룩 굴러 탐사자들에게로 향합니다. 탐사자들을 발견한 대표들은 다 모였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탐사자들을 하나씩 세어보고 안내를 시작합니다.

“ 마을에 일어나는 혼란을 우려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던 사항이지만, 자네들에겐 특별히 당부할 사항이 있다. 최근 몇 달간 외부에 위치한 단체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을 은밀하게 납치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종사건도 그 단체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 중이다. 탐사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도시 쪽으로 가 납치된 실종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살아있는 상태라면 마을까지 데려오고, 데려오지 못할 것 같으면 흔적만이라도 가져오도록 해라. 외부 단체와는 가능한 접촉하지 말도록. 안내 사항은 이시다. “

안내사항이 끝나면 잠깐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외부 단체? | 우리 마을에서 사람들을 빼가는 단체들이다. 온갖 방법으로 마을 내부에 접촉해서 주민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걸 최근에 발견했다. 목적은 모르지만 우리 마을의 사람들과 물자를 가져가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 단체가 사람들을 어떻게 빼가는가? | 듣기로는 마을 밖에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속여 꺾어내는 듯하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밖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다. 밖에서 단체의 일원을 만난다면 현혹되지 말고 마을로 돌아와라.

▷ 대표들을 향해 <심리학> 판정을 시도할 경우 | 성공할 경우 극도로 음울한 기운을 느낍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살아있는 사람이 맞긴 한가요? 실패할 경우에는 우울해보인다는 느낌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나가서 실종자들을 찾아볼 것, 찾지 못한다면 흔적이라도 가져올 것, 외부 단체와 접촉하지 말 것. 대표는 대화를 마친 후 내일 아침까지 쉬라며 등을 돌려 컨테이너 밖으로 나갑니다.

「설원의 마을_밤」

배낭을 받아 밖으로 나오면 하늘엔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낮에 비해 바람은 잦아든 것 같네요.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듣기> 판정을 진행해주세요.

▷ 성공 | 눈을 밝고 오는 듯한 사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 실패 | 바람 소리였나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면 어림잡아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탐사자들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머뭇거리다가 다가와 당부와도 비슷한 말을 뱉습니다.

“북풍이 불면 도망가거라. 바람 속을 걸어오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 괴물이 너를 잡아먹을 거란다.”

자세히 물어보려고 해도 아는 것이 없는 건지, 두려워하는 것인지 모를 태도를 보이며 횡설수설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추궁하거나 대인 기능 판정에 어려운 성공 이상이 나오면 딱 한 마디만을 덧붙여 말합니다.

“커다란 구름같은 것이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 너무나도 크고 번쩍이는 두 눈이 나를...”

거기까지 말하곤 마을의 외벽 쪽으로 달아나 사라져 버립니다. (* 대표들 몰래 밖에 나갔다가 도시를 돌아다니는 이타과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탐사자들이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잠을 청하면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잠에 든 탐사자들은 공통된 꿈을 꾸니다. 추위가 모든 것을 삼키기 전, 우리가 보내던 일상 속을 사는 꿈을 꾸니다. 평화로웠나요? 당시엔 지겹다고 느꼈을지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디선가 천둥과도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희미한 박동이 몸을 통과함을 느낌과 동시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흰 눈과 뒤섞인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의 손으로 세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탐사자에게 쏟아집니다. 내리는 눈은 희기만 한데, 눈앞은 캄캄해져 옵니다. 곧 머리 위로 쏟아져 짓눌릴 무게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면... 여기는 텐트 안, 눈과 얼음에 먹힌 마을 속입니다. 꿈을 꾸 탐사자들은 **이성 판정.**

[0/1]

「설원_아침」

아침이 오면 탐사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밖으로 나가면 대표들과 마을의 어른들 몇 명이 모여있네요. 배웅이라도 해주기 위해 모인 듯합니다. 어제 식당과 중앙컨테이너 밖을 나섰을 때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네요.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건네고 나가면 아득한 눈발이 탐사자들의 앞에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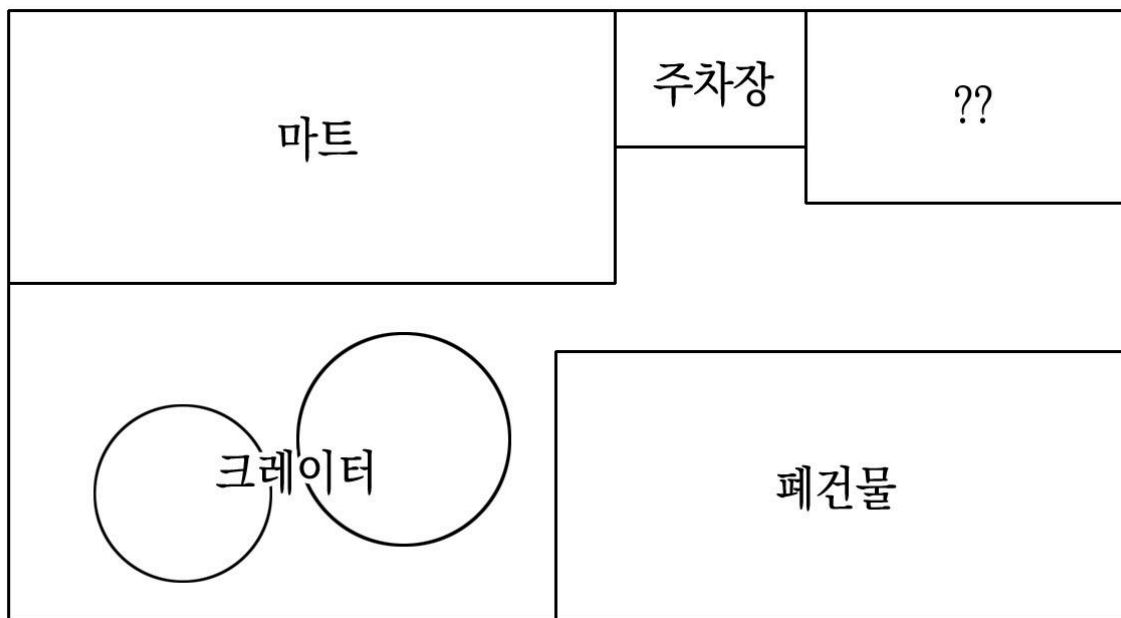
* 탐사자들이 설원으로 나가기 전 어제 만났던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어제 나눴던 얘기에 대해 묻는다면 그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로북 p.289 왼쪽 하단의 박스 참고)

분명 대표들이 어제 도시 쪽으로 가 실종자들을 찾아보라고 했었죠. 고개를 들면 도시였던 것이 멀리에 보이고, 바람 소리가 컸가를 스칩니다. 다시 눈보라가 치기 전에 걸음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도시 쪽으로 향하기 전 주변을 살필 경우 | 외벽 뒤로 마을의 대표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발견합니다.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기라도 하려는 듯, 집요한 시선입니다.

도시의 흔적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 간밤에 다시 쌓인 눈에 신발이 파묻힙니다. 흰색 빛깔 이외의 것을 본 지 얼마나 지났었나요. 조금이나마 내어놓은 살갓에 달는 바람이 얼어붙을 듯 차갑습니다. 추위와 맞서 싸우며 걷다 보면 도시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건물에서 빠져나온 철골들이 눈밭을 뚫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실종자들의 흔적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후 탐사자들은 도시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도시」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위에 살얼음이 낀 건물, 입구에 사람 키만한 고드름이 달린 마트의 입구, 예전에는 도로를 달렸겠지만 지금은 한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들이 주차장에 버려져 있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폐건물들도 보이네요. 곳곳에 우리가 살던 곳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발밑에는 흰 눈밭 아래에 우리의 과거와 더불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있겠죠.

「마트」

입구였을 문의 위쪽에 기다란 고드름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자동문이었을텐데, 지금은 작동이 멈춘 채 열려있네요. 안은 어두컴컴하기만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살얼음이 낀 바닥 위, 엉망으로 쓰러진 매대들이 보입니다. 좀 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반쯤 뜯어진 문이 보입니다. 창고로 쓰던 곳일까요?

▷ 바닥을 살필 경우 | 채 녹지 않은 얼음들이 가득 끼있는 바닥입니다. 발을 빼끗하면 넘어질 것 같네요. 자세히 살피거나 <관찰력> 판정에 성공한 탐사자는 미세하게 얼음의 높낮이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걸어들어갔던 듯, 발자국 모양으로 파여있습니다.

▷ 매대들을 살필 경우 | 철제 골조로 이루어진 매대들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버린 채 바닥에 어지럽게 쓰러져 있네요. 대부분의 물건은 재난이 시작된 직후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텅 빈 통조림 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신발들, 바닥이 뜯겨진 채 분해된 상자들... 각종 쓰레기들만이 흩어져 있습니다. 통조림 캔을 자세히 살펴보는 탐사자는 통조림 캔 안에 남은 찌꺼기들이 아직 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뜯어서 섭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네요.

▷ 문을 살필 경우 | 아래 쪽이 반쯤 우그러진 채 뜯어진 철제 문입니다. 들어가기 전, <듣기> 판정 등을 이용해 살핀다면 안에서 사람 몇몇의 숨소리를 엿들 수 있습니다. 탐사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튀어나와 탐사자들을 덮칩니다. 회피가 가장 낮은 탐사자가 <회피> 판정을 해주세요.

▷ <회피> 성공 | 문을 열자마자 갑작스레 튀어나온 것을 재빨리 피합니다. 반짝이는 빛이 순간 허리춤을 스쳐가고, 휘청이는 몸을 가다듬고 우릴 덮친 것을 살피면... 비교적 얇은 재질의 점퍼를 겨우 걸치곤 추위로 인해 손톱은 보랏빛이 된 채 작은 과도를 겨누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 <회피> 실패 | 문을 열자마자 갑작스레 튀어나온 것과 몸이 부딪힙니다. 반사적으로 밀쳐냈던가요?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에 눈을 돌려보면 팔뚝 언저리의 옷이 날카로운 것에 베인듯 찢어져 있습니다. 휘청이는 몸을 가다듬고 우릴 덮친 것을 살피면... 비교적 얇은 재질의 점퍼를 겨우 걸치곤 손톱이 보랏빛이 된 채 작은 과도를 겨누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 생존자를 살필 경우 | 과도를 들고있는 사람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기에 몸이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이 한껏 일그러진

상태입니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는 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말을 걸거나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너희도 그 단체의 일원이니?”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적절한 롤플로 진정시키거나 대인 기능 판정에 성공한다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 **단체라니?** | 마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우리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쪽지따위를 보내서 부르더니, 자기들은 얼굴 한 번을 비추지 않았다. 그 쪽지를 믿고 밖으로 나왔더니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그걸 피해서 돌아다니게 벌써 2달째다. 우리를 안전한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다 죽이려는 녀석들이 틀림없다. 단체놈들이 괴물을 밖에 풀어둔 것이다.

▷ **괴물이 실제로 있는가?** | 눈보라를 몰고 다니는 괴물이 도시를 돌아다닌다. 무서워서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정체를 확인하겠다고 그 괴물을 따라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 **단체의 특징이 있었나?** | 그 녀석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었다. ‘툰드라’라고, 마을 밖에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툰드라가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밖에 있던 것은 괴물이 돌아다니는 도시일 뿐이다.

▷ **왜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가?** | 북풍이 불면 갑자기 나타나는 괴물이다. 너희는 바람이 어디서 언제 불지 예측할 수 있나? 돌아가겠다고 나서다 괴물을 만나 더 많은 사람들을 잃느니 여기서 버티려고 한다.

▷ **도시에 다른 생존자가 있나?** | 괴물을 따라간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다. 단체의 사람들도 몇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 **북풍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나?** | 도시의 가장 북쪽에 높은 첨탑이 있다. 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위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바람이 거기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북풍을 구별한다.

눈이 부실 정도의 흰 빛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폭 패인 건지 바닥의 높낮이가 다릅니다. 사람 몇 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크레이터 같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 흔적을 <관찰력> 판정으로 살핀다면 이 흔적이 누군가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발을 걸어 다니는 거대한 존재는 무엇인가요? 이 경우 탐사자, **이성 판정. [0/1]**

▷ 눈발을 파헤칠 경우 | 희디흰 땅을 파헤칩니다. 눈을 파고드는 손이 축축하게 젖어오기 시작할 무렵,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습니다. 파헤쳐보면... 부릅뜬 눈동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파헤친 곳엔 채 썩지도 못한 시체가 놓여있습니다. 시체를 발견한 탐사자는 **이성 판정. [0/1D3]** 시체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추위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것임을 발견합니다. 뒤통수를 가격당한 흔적이 있네요.

「주차장」

이제는 사용도 하지 못할 차들이 그저 세워져있을 뿐인 공간입니다. 안쪽에 무언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이 보이네요. 옆 건물과 이어진 건지 오른쪽 벽면에 붙은 문도 눈에 들어옵니다.

▷ 안쪽에 쌓여있는 것을 살필 경우 | 주차장의 가장 구석, 마트와 이어지는 문 쪽에 쌓여있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몸의 이곳저곳이 뜯긴 채 사망한 시체들이 몇 겹이고 쌓여있습니다. 얼어버린 몸뚱이들은 사람이었다기보단 하나의 너털거리는 덩어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시체를 본 탐사자는 **이성 판정. [0/1D3]** * 눈발에서 시체를 보았던 탐사자는 **[0/1]**, 혹은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얼핏 짐승에게 뜯긴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몇 번이고 내리찍은 흔적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른쪽 벽면의 문을 확인할 경우 | 특별한 잠금장치가 걸려있지는 않은 문입니다. 옆에 어쩐지 이질감이 드는 간판 하나가 걸려있습니다. 풍파되어 낡은 흔적이 다른 곳보다 덜한 간판이네요. 적힌 것을 읽어본다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 라고 적혀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간다면 「수상한 건물」을 진행해주세요.

「폐건물」

꽤 높은 건물입니다. 회사였던 걸까요? 쓰러진 파티션들, 깨져서 바람이 통하는 창문, 그에 따라 흔들리는 커튼... 구석에 간이 침대같은 것도 놓여있네요. 급하게 도망갔는지 활짝 열린 문도 보입니다.

▷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경우 | 강하게 불었던 바람 때문인지 엉망으로 흩뿌려진 서류들과 금고가 보입니다. 이리저리 넘어져 있는 의자나 화이트 보드 따위들도 보이네요.

▷ 서류들을 살필 경우 | 서류의 글자 중간중간이 흐리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들이 마을 주민들을 이타과의 제물로 바친 것, 단체와 접촉한 사람을 처벌한 것에 대한 방출 기록입니다. 탐사자들의 국적에 맞춰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XX.04.02

(마을 주민H), (마을 주민I), ■■ 방출

20XX.04.23

(마을 주민C), (마을 주민D), (마을 주민E) 방출

- 행방을 묻는 주■에겐 탐사 이후 실종되■다고 보고할 것.

20XX.05.02

(마을 주민F), (마을 주민G) 방출

20XX.05.14

마을 주민B (*의료 차트에 적혀있던 14호실의 주인과 동일 인물입니다.) 처벌 완료

- 배정된 텐트에서 사라짐. 도주자들이 데려간 것으■ 추정.

20XX.--.--

외부 단체의 개입으로 주민 관리에 차질이 ■■. 단체와 접촉한 전원을 ■■■에게 공급예정.

▷ 금고를 살필 경우 | 정사각형 모양의 금고입니다. 잠겨있는 상태네요. 다이얼을 돌려서 여는 것 같은데, 고장났는지 숫자판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열려면 강제로 뜯어내야 할 것 같네요. <근력> 판정을 이용해도, <열쇠공> 판정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탐사자들의 선언에 따라주세요.

▷ 금고의 내부를 살필 경우 | 유독 두꺼운 사전 하나가 눈에 띄니다. 금고 안에 이것 하나만을 보관해둔 건가요? 책을 꺼내면 의외로 무게가 가볍다는 것을 눈치챱니다. 책을 열어보면 속이 파져있고 그 안에 노트 하나가 들어있네요. 살구색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노트는 어쩐지 음습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불온한 죄를 저지르는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마녀, 흑마술사, 주술사... 신성모독적 악행을 일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야기들의 끝에는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이루어진 주석들이 달려있습니다. 노트를 읽은 탐사자는 1D6만큼의 이성 손실이 일어납니다.

* 룰북 p.228에 나온 '뉴잉글랜드 가나안의 천재 마도사들' 중 필립스 목사의 개인 소장본입니다. 로이고르들이 구해온 책입니다. 탐사자들이 연구를 원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룰북을 참고해서 진행해주세요.

「수상한 건물」

수상한 건물의 입구로 들어옵니다. 노후된 시설, 한 명이 겨우 올라갈 폭의 계단... 입구엔 아무것도 없는 걸 보아 위로 올라가야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밟으면 시멘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계단을 오르면 불투명한 유리로 막힌 문이 나옵니다.

▷ 유리 너머로 내부를 볼 경우 |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관찰력> 판정을 한다면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리는 형상을 볼 수 있고, <듣기> 판정을 한다면 끼익 거리는 마찰음을 듣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습니다. 열면 오랫동안 닫힌 채 열리지 않았던 듯, 불쾌한 금속음과 함께 문이 열립니다. 보이는 것은...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이다 못해 여기저기 쏟아져 흐트러진 책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물의 냄새와도 비슷한 악취가 풍겨오고, 고장난 모니터에서 거슬리게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 모니터를 살필 경우 |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 듯한 모니터들입니다. 대부분이 고장 났는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있지만, 몇몇 모니터에는 눈발이 펼쳐져 있습니다. 풍경이라도 찍고 있던 걸까요?

▷ 모니터 안의 풍경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경우 | 모니터 속의 흰 빛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아득하게 펼쳐진 눈발... 그 너머에 뾰족하게 솟은 무언가가 보이는 듯합니다. 건물? 기둥? 화질이 흐려 제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책을 살필 경우 |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적힌 책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읽기라도 했었는지 밑줄이 쳐진 부분, 접혀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니다. 보이는 부분들 중 읽을 수 있는 것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룰북p.254의 관문상자의 내용입니다.)

양쪽 끝을 이루는 나무 상자-문의 역할을 할 것이다.-를 준비해 하나만을 열어둔다.
가려는 장소를 그리며 의식을 치른다.
만들어낸 상자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면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관문이
만들어진다.
통로를 지날 때도 희생이 필요하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 앉아있는 사람을 살필 경우 | 가슴 부근부터 허벅지까지의 부위가 손실되고 붕대로
어설피게 묶인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맞긴 한가요? 몸의 절반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의 사람은 피에 젖은 붕대를 몸에 감고 몸 곳곳에 생명 유지 장치가
붙어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걸까요? 멍한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네요.
앉아있는 흔들의자는 힘없이 끼익 거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 마을의 진료차트에 적혀있던 사람입니다. 마을에 의해 본보기로 희생당한 이후 방치되어
죽을 뻔한 것을 단체 측에서 구해온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단체의
일원이 모두 사망한 이후 혼자 남겨졌습니다.

대화의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탐사자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걸면 답하지 않습니다.
대인기능 판정에 성공할 경우엔 약간의 대화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 ▷ 당신은 누구인가? | 여기에서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다.
- ▷ 마을에 살던 사람인가? | 예전에는 그랬다.
- ▷ 괴물에게 당했나? | 마을 사람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단체가 날 구해줬다.
- ▷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 도망갈 계획을 세웠었다. 툰드라를 찾던 곳이다.
- ▷ 왜 가지 못했나? | 모두 죽어버렸다.

탐사자들이 더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일정 이상 대화를 나누면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앉아있는 몸을 미약하게 흔들며 “도망가야 해... 도망가야 해...” 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탐사자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면 시선을 고정한
채 “그 마을을 너무 믿지 마.” 라는 말만을 남깁니다.

밖으로 나오면 어느새 바람이 거세져 있습니다. 뽕뽕 막아둔 귀에 비명과도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해가 지는지 하얗기만 하던 평지에 노란빛이 감돌기 시작하네요. 이후
탐사자들이 적당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원_밤」

적당한 폐건물을 찾아 몸을 눕힙니다. 난로도, 난방시설도 없이 겹쳐 입은 옷과 주변 사람들의 온기로만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잠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는 내일을 위해 눈을 감습니다. ... 탐사자들이 눈을 감고 시간이 지나면 <듣기> 판정을 해주세요.

▷ 성공 | 쿵, 쿵...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땅이 흔들리는 건가요?

▷ 실패 | 쿵, 땅이 흔들리는 감각에 눈을 뜹니다.

흔들리는 건물의 천장에서 가루들이 떨어집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있자면, 밖에서 또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깨진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북쪽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눈도 뜨기 힘든 바람을 막아가며 아래를 내려다보면... 눈보라 속을 걸어가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사람들? 사람들의 행렬인가요? 제대로 된 옷도 갖춰 입지 않고 얇디얇은 차림을 하고선 어딘가를 향해 멍하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맨 앞을 보려고 하면 유독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자세히 살핀다면 실종자들의 얼굴도, 처음 보는 얼굴들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을 살피는 중에도 진동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마치 저주와도 같은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전원, **이성 판정. [1/1D6]**

이후 발자국과 사람들의 행렬을 <추적> 판정 등을 이용해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행렬의 끝, 가장 앞에서 사람을 닮은 거대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눈보라가 유독 휘몰아치는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은 아닌 것, 바람을 타고 걷는 존재, 피부 위로 두껍게 내려앉은 서리, 그 모든 것들의 위에 빛나는 눈동자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구름 속의 빛과도 같은 그것이 탐사자를 응시합니다. 이타과를 직접 목격한 탐사자는 **이성 판정.**

[1D10/1D100]

「설원_2일차」

마을을 나오기 전 들었던 말을 기억하나요? “북풍이 불면 도망가거라, 바람 속을 걸어오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 그 말을 들어서 일 수도, 아니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해 움직이지 못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 행렬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엔 그렇게나 거세던 바람이 잦아들고, 찌뿔던 발자국들은 어느새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나 뿐이겠네요.

이제는 사라진 사람들이 향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눈썹에 서리가 끼는 듯한 감각을 느끼며 한참을 걷다 보면... 무너진 건물들로 둘러싸인 공터 같은 것이 나옵니다. 교회와 그 부속 건물들이 있던 곳인 듯 싶습니다. 무너졌음에도 높고 뾰족한 위상을 자랑하는 첨탑과 깨진 창문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십자가와 의자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체인가요? 손과 발, 얼굴, 때로는 불룩 굽은 채 튀어나온 등이 눈발에 반쯤 파묻힌 상태입니다. 아, 시체의 발에는 아까 행렬에서 보았던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수를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더 오랜 시간을 여기서 죽어왔던 것이겠죠.

▷ 시체들을 살필 경우 | 눈에서 시체를 꺼내 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신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양손이 떨어져 나간 사람, 발이 없는 사람, 머리가 짓이겨진 듯 얼굴이 반쪽만 남은 사람... 고통 속에서 사망했는지 몸은 몸부림치는 자세로 굳어있습니다. 추위보다 차가운 것은 여기서 이유 모르게 죽어갔을 사람들의 몸뚱이입니다. 시체를 본 탐사자는 **이성 판정. [0/1D3]** (* 이전에 시체들을 본 탐사자라면 수치의 감소를 적절히 조정해주세요.) 시체를 본 탐사자는 이어 유독 손을 꼭 쥐고 있는 시체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쪽지인가요? 몇몇이 작은 종이를 쥔 채 죽어있습니다.

▷ 시체의 쪽지를 살필 경우 | 시체들이 쥐고 있는 쪽지를 모두 모으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 이름은 탐사자의 국적에 맞게 임의로 정해주세요.), 바람이 부는 북쪽으로 와요. 우리 거기에 있어요.]

[바람을 타고 걷는 것을 조심하세요. 현혹당해선 안 돼요. 귀와 눈을 막고 우리한테 걸어오세요.]

[북쪽의 가장 추운 곳에 올라서서 우리를 불러요. 계획이 멀지 않았어요.]

▷ 침탐을 살필 경우 | 침탐의 부분부분에 서린 서리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타고 오르기라도 했던가요?

탐사자들이 높은 곳을 올라 주변을 살핀다는 선언을 하면 <오르기> 판정, 혹은 수호자께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판정을 해주세요. 어떤 기능이든 성공한다면 얼어붙은 벽면을 붙잡아가며 탐을 오릅니다. 손끝에서 뭉개지는 서리들 아래로 예전의 색을 드러내는 침탐의 붉은 빛이 비쳐나옵니다.

끝내 침탐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면 무너진 도시를 뒤로하고 또다시 아득한 벌판, 벌판, 그리고... 눈보라에 휩싸인 검은 형체가 멀리서 보입니다. <항법> 판정에 성공한다면 그곳이 북쪽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력> 판정을 한다면 마을에 있던 것과 비슷한 형상의 컨테이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망설일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네요. * 수상한 건물에서 모니터들을 봤던 탐사자라면 그곳의 풍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컨테이너의 밖엔 [마지막 툰드라 프로젝트]라고 적힌 간판이 달려있습니다. 누군가 나무판을 긁어 쓴 듯한 어색한 글씨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숙소로 쓰였던 것처럼 방이 여럿 늘어서 있습니다. 위로 가는 계단은 막혀있지만 아래로 향하는 계단만큼은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 방을 살필 경우 | 사람이 생활했던 것처럼 자잘한 이불이나 생필품들이 그대로 놓여있네요. 그리고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니,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잠들듯 사망한 시체들입니다. 얼어붙은 듯, 잠에 든 듯 눈을 감은 시체들은 하나같이 바싹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거대한 공간이 나옵니다. 강당과도 같은 크기의 지하에는 수상한 건물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모니터들, 무언가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는 책상들, 그리고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무 상자가 벽의 양쪽 면에 놓여있습니다. 바닥에는 사람 몇몇이 바싹 마른 상태로 죽어있습니다.

▷ 상자를 살필 경우 | 사람 셋이 일렬로 설 정도의 길이인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는 닫혀있고, 하나는 열려있네요. 열려있는 상자의 내부를 살피면... 이상하게도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안으로 끝없이 이어진 것만 같은 착각을 들게 합니다.

▷ 모니터를 살필 경우 | 모두 화면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고장이 난 건가요? 액정이 아예 나가 있는 것 같네요. 비디오 등을 넣을 수 있는 기계 따위가 아래에 달려있습니다.

▷ 책상을 살필 경우 | 테이프 같은 것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모니터와 연결된 기계에 테이프를 넣으면 영상 대신 소리만이 지직거리며 흘러나옵니다.

[.... 이주가 필요해요. 그 마을은 우리를.....]

[우리가 찾은 마지막... .. 그곳으로,]

[...평화...이주..... ..가.....그게 우리의 마지막 툰드라 프로젝트예요.]

▷ 시체를 살필 경우 | 시체들의 위에 휘갈겨 쓴 메모 따위가 붙어있습니다. 누군가 놓고 가더라도 한 걸까요? 읽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로를 만드는 것엔 희생이 필요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죽었다. 이제 통로를 건너갈 수 있으나 모두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길 발견할 사람에게 전한다. 보다 괜찮은 미래를 선택하기를.]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상자가 우릴 기다리듯 서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실종자들은 모두 죽었노라고, 그리고 설원의 끝에서 이상한 장소를 찾아냈다고 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이곳으로 와서 저 미지의 문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끼리만 이 문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탐사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어떤 선택을

하든, 탐사자들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탐사자들이 넘어간다면 **END1**, 넘어가지 않는다면 **END2**를 진행해주세요.

「엔딩 분기」

END 1 > 탐사자들끼리 관문을 넘어갔다.

END 2 > 마을로 돌아갔다.

END 3 > 마을로 돌아가지도, 관문을 넘어가지도 않았다.

> 탐사자들끼리 관문을 넘어갔다.

어두운 상자의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무언가 심장을 쥐었다가 놓는 느낌, 머리에 들어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었다 다시 집어넣는 기이한 기분을 느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설원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때처럼요.

알 수 없는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온기가 담긴 바람이 뺨을 쓸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시야가 한순간에 밝아지며, 그 언젠가 보았던,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낯설어진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진녹색의 이끼들이 무한하게 펼쳐진 땅. 계절과 시간이 바뀌는 곳, 얼음이 사라지면 생명이 자라나는 장소. 누군가 찾던 이 세계에 남은 마지막 툰드라...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점차 더워지겠죠.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입니다.

END 1. 마지막 툰드라, 시작의 발걸음

...

한편 추위가 남은 세상, 그 안에 살고있는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 봄이 오는 세상이 있단다. “

“ 그곳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 기록으로만 남은 이들이 있단다. “

“ 흑한이 끝나는 날 우리를 데리러 올 사람들이... “

- > 탐사자 생환.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 > 엔딩 보상으로 이성 회복 1D6
- > 관문을 넘어가는 비용으로 마력 3 소모.

> 마을로 돌아갔다.

우리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곤 알립니다, 봄이 오는 땅이 있다고. 누군가 그 길을 찾아내었다고. 마을은 웅성입니다. 그리곤 모두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가장 추운 곳, 북쪽의 끝. 마지막 툰드라가 있을 그곳으로요.

마을 이주를 떠나기 전날 밤, 대표들은 탐사자들을 불러모아 은밀하게 묻습니다. 마을의 안과 밖에서 무얼 듣고, 무얼 보았냐고. 대답을 피하든, 피하지 않든 그들은 말이 없더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어 갑작스레 눈가가 움푹 패이고, 마치 미라가 되어가는 것처럼 살가죽이 뼈들과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공간이 우그러들듯 뭉치기 시작하더니 일자로 짝 찢긴 눈동자와 함께 울룩불룩하게 솟은 갈기와 비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늘이 달린 수족이 허공을 꿈틀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꿈에선가 들었던 것 같은 천둥소리가 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내립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마저도요.

탐사자들이 없는 아침.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한 인간들의 행렬이 북쪽 끝으로 이어집니다. 북풍을 타고 불어오는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지, 계속, 끝없이, 흰 길을 걸어서...

...

마지막 툰드라, 그곳의 아이들에게겐 하나의 기록이 전해집니다.

“ 세상이 얼어붙은 지 1000일이 되는 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방법을 찾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

“ 새 땅을 발견한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시켜 우리를 이 땅에 정착게 해주었습니다. “
“ 기록으로 남은 희생이 여기 있습니다. “

이곳에도 언젠가 얼음과 눈의 저주가 내리겠죠. 그전까지는 잠시나마 온기가 어린 바람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언젠가 사라질 안식처, 누군가 찾던...

END 2 . 마지막 툰드라, 1000일간의 기록.

> 마을로 돌아가지도, 관문을 넘어가지도 않았다.

우리는 컨테이너 내에 남습니다. 건물 내에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고는 오직 우리 뿐이네요.
적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울은 언제쯤 끝날까요? 바람이 멈추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 바닥을 구르는 시체들이 연구하던 단어를 곱씹어봅니다. 마지막 툰드라, 그걸 누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땅이든, 새로운 삶이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입니다.
언젠가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 새 생명이 자라나는 곳,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그곳은...

END 3 . 마지막 툰드라, 혼자만의 기록.